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 은행 제목 : 하나님 나라의 은행 성경 : 마태복음
25장 14-30절

14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2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 이 무익한 종을 비갈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25:14-30)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로 온 세계가 고통 당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나라보다도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나라는 IMF백신도 접종하였기 때문에 더 건강할 수 있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었다. 금모으기 운동이 그 가시적인 증거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위기에 멍치는 민족이다. 평상시에는 비판적이라도 함께 돌파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강철처럼 멍친다.

이제 우리는 위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잘 멍치는 민족이 되면 어떤 위기도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은 역시 탐욕에 있다. 또한 금융제도에 대한 맹신에 있다. 또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가치부여가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돈 만지는 부자로 생각한다면 샤일록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돈의 힘을 자신의 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가 비록 아무런 법적인 죄를 저지르지 아니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무식한 자요,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것이요, 가난한 자의 양으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려는 것과 같다.

금융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새로운 금융질서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현재의 금융 질서가 매우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만큼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기에 약하다. 또한 탐욕에 약하다. 또 정부가 실수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즉 죄 앞에 무기력하다는 뜻이다. 한 두명 죄를 범한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신뢰를 저버린다면 무너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 금융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위기에 강한 새로운 금융질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소스를 제공해 주었다.

달란트은행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달란트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비유가 단순히 교훈을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로서의 기능이 아닌, 실제로 현실 현대 세계에서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1. 은행은 자신의 소유를 사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받는다.
2. 은행은 그 사람의 능력을 가늠해서 그 재능대로 그에게 투자한다.
3. 은행은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컨설팅한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열므나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말한다.) 또 은행이 다섯달란트를 빌려 주었기 때문에 다섯달란트 남겼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은행이 이 사람의 재능은 다섯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섯달란트를 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짐작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은 무작정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4. 은행은 모든 회사의 공통된 업무를 지원한다. 17절에 보니까 ‘그 같이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모델로 삼아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 은행은 이런 모델이 되는 기본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자금확보, 세금, 회계, 각종 인허가, 보안, 보증, 보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이 부분은 은행의 고용창출에 속하는 부분이며, 투자의 다른 형태로 여긴다.) 회사가 연구개발, 제품개발, 제품생산, 인사관리, 품질향상, 시장조사, 영업 등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5. 은행은 회사의 실제적인 주주가 되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즉 충분히 이윤이 발생했다고 여겨질 때 결산을 통해서 지분을 받는다. 그러나 은행은 자신의 지분을 1/10 이상을 받을 수 없다. (회사나 그룹이 은행을 소유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회사를 일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사장은 바뀔 수 있어도 회사는 바뀌지 않는다. 사장은 망할 수 있어도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6. 사장의 능력이 인정되면 그는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금융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유지 관리하는 곳이다.

-은행은 이자가 아닌 지분을 받는 곳이며,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도록 해서 사회전반적인 경제부흥을 창출하며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장도 심지어 망하게 되더라도 그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기술과 열정과 수고에 대한 댓가는 받고 나갈 수 있게 한다. (성경 대로 한다면 열달란트 있는 자에게 간다.)

-다만 만약 한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장에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악하고 게으르면. 어쩌면 두 단어는 하나의 현상을 두가지로 표현한 것인지 모른다.) 즉 사장이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그는 결코 파산하게 해서 는 않된다는 뜻이다.

-이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행이 세워지기를 소망해 본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헌신 제목:예수님께 기념이 되는 사람 말씀:
마태복음 26장6-13절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
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
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
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
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는 세번이나 있었다. 죄를 지은 어떤 여
인이 (창녀 였던거 같음) 예수님의 뒤에서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 여자의
직업에 대해 말을 만들었다는 사건이 그것이고,

또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나드향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
건이 그것이고 (마태복음과는 300테나리온의 논쟁 부분만 같다.)

오늘 사건은 특이하게 이름은 없지만,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다. 머리에 부은 사건은 이것이 유일한 사건이고 나머지는 발
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처녀들은 시집갈 자금으로 향유를 모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
다.

특히 나드향은 값이 비싸서 고위급 인사들만 사용하였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 공경을 표시하였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일생에 가장 큰 가치라고 믿었다.

예수님께 존귀를 돌려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 어떤 것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행위 만으로 만족과 보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비록 한번이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결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이처럼 삶의 매 순간이 예수님께 기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댓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허무한 일, 억울한 일, 최악된 일, 더러운 일을 많이 경험하는가?

얼마나 많이 속고, 속이면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는데 재산을 소비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내가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뭐 그리 억울할 것인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있는 일이 아닌가?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가치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는 것과 비교되어서는 않된다.

돈이 많아야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작정 돈을 쥐어 준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내 곁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금전적인 도움 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문화적인 도움이 베풀어진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생활이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얻어가는 데 그치면 곤란하다. 복음이란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